

칼럼

김수중 뉴스1 코문



UN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 질타한 소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메이커는 세계 지도자들을 질타하며 '거짓말' '배신' '악마' '용서 못해' 라는 말을 당돌하게 거침없이 날린 스웨덴의 16세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였다.

이날 유엔총회는 기온상승을 쟁쟁이 2도 이하로 막자는 파리기후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 (Climate Action Summit)다. 아마 많은 대통령들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이 소녀의 외침을 감명 깊게 들었을 것이다.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레타 툰베리는 몇 발짝 뒤에서 트럼프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트럼프는 툰베리 소녀의 연설에 대한 논평을 트위터에 남겼다.

"여러분들은 빈말을 하면서 내 꿈과 동심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돈'과 '경제성장'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여기 와서 충분히 했다고 말합니까? 젊은 세대가 여러분의 배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으로 가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2018년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라는 파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네 아이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 운동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타입' 지 커버 스토리 주인공이 됐다.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에 이미 환경운동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2018년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라는 파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네 아이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 운동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타입' 지 커버 스토리 주인공이 됐다.

움직일 정도로 높아져, 식구들이 비행기 여행과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스웨덴에서 유명한 배우이며,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다.

툰베리의 행동주의 환경운동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일으키면서 어른들에게 행동하라는 캠페인이 유럽과 미국에서 퍼져 출판과 문화 시장에 변화를 유발하고, 이런 변화에 정치인들이 예민해지고 있다.

세상일에는 찬반이 엇갈리게 마련이다. 툰베리의 환경운동방식을 놓고 냉소하는 것은 비단 트럼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수출국 지도자들도 냉담하다. 서구의 지성인들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기후변화는 우려할 속도도 진행되는 것을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취지에 유엔회원국 195개 나라가 동의한 상태다.

미래를 살아갈 10대 학생들이 '그레타 툰베리 효과'에 쉽게 동조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나 아라비아 왕자 일지라도.

社說

가족의 다양성 존중돼야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전국 만 19~79세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 응답자가 찬성했다.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다.

생신고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였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6%였다. 응답자의 60.1%는 혼인이나 혈연에 기초하는 가족의 범위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유교문화의 구태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평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야생버섯, 독이 될 수 있다

산행 등 야외활동 중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를 삼가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최근 5년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연 독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9월에만 27명(75%)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나눠먹다 피해 본 경우가 많았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민간에 떠도는 속설로 구분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며 다음의 속설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새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은수저 등 은제품을 걸개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요리에는 독이 없다
▲벌레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독버섯이라도 가지나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 등이다.

나 설사, 복통, 환각증상 등으로 이때는 먹었던 야생버섯이나 사 진 등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야생버섯은 주위환경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달라 전문가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